

신년특집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지난 연말의 '도서관계 10대뉴스'에서 보았듯이 2005년에는 도서관법 전면개정 추진, 도서관에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권고, 저작권법 개정, 사서교사 임용, 주40시간 근무제, 독서문화 확산 등 여러가지 큼직한 일들이 있었다.

2006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세계도서관인들의 축제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에 한국의 도서관문화와 사서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인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도서관법, 저작권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도서관 관련법의 제도 정비,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변화를 받아들일 줄 모르면 그 존재가 사라진다."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변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그 "변화"의 중심에 도서관계가 자리잡아 사회 속에 더 큰 부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설문 사항]

- ① 귀하께서는 2006년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0자 내외)
- ② 귀 단체의 올 한해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간략히 알려 주십시오.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이선 사무관

① 병술년 새해는 도서관계로서는 의미 있는 해이다. 도서관의 올림픽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올해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 1999년 방콕대회에서 2006년도에 서울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우리 도서관계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대회를 통하여 한국의 도서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IT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005년도는 특히 국회에서 도서관법 관련해 많은 관심이 집중된 해였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안」(이미경의원, 박형준의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안」(정병국의원), 「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의원) 등 의원발의 된 법안이 4건이나 된다. 2006년도에는 도서관법의

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올해 도서관계 최고의 과제는 무엇보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도서관인 모두 힘을 모으는 일이다. 문화관광부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개정중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안」을 서둘러 정비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정비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도서관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지난 해 우리부는 도서관정책의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맡도록 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책 부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 지식 선진국(知力強國)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국립중앙도서관 2010」을 발표한 바 있으며, 비전 실천의 원년인 2006년도는 지식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 보존프로젝트(OASIS) 본격 가동, 국가 전자도서관 사이트와 국가 지식포털 사이트 연계 서비스 실시, 민간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서비스 실시 등 디지털라이브리리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의 집산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한다. [연락처 : 이선 사무관, (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Tel. 02-3704-9412, slee5905@mct.go.kr]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유경종 사무관

① 2006년도에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조직위원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해이다.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이며, 일부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잘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안의 개정을 둘러싸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김재운 의원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현장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사서교사 및 사서 등 전담 인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도서관에서는 국가적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 강화, 국가 보존서고 설립,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치를 매개로 한 상호대차 활성화, 국가대출체계 구축,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개

선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연구될 것으로 전망한다.

② 약 580개 대학도서관 소장 장서량은 98백만권, 5년(’01~’05)간의 대출책수는 약 50% 감소로 나타나고, 선진국에 비해 정보자원 축적량이 부족하다. 정보자원의 외국의존도가 높고,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의 정보격차가 심하고, 자료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 감액으로 구매력이 감소되는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층적인 자원공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중요자료는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중요하지 않는 복본자료는 폐기하여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국가 보존 서고의 설치를 연구·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해외 전자자료의 국가라이센스를 확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담수서를 통한 예산 절감,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고문서 등의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역사자료정보화, 수치, 설문자료 등 원자료의 디지털화, 학위논문, 학술지 등의 자료를 생산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 디지털 유통체계(dCollection) 보급 등 국가적 학술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서소장 위주의 대학도서관 평가지표를 자원의 공동 활용,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지원액 등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총 3,000억원을 투자하여 6,000개의 학교도서관을 설치 또는 환경개선, 학생 1인당 장서수를 10권 확보) 4년째인 2006년에는 학생들의 책임기 습관 함양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첫째, 1,200개의 학교도서관 설치 또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학생 1인당 장서수를 9.2권으로 확충, 둘째, 도서관 활용수업 등 학교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16개 학교도서관 정책연구학교를 운영, 셋째,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사서교사, 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확충, 넷째, 학교도서관 대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학부모들의 참여 유도, 이외에도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DLS)을 지원하여 일선 학교도서관이 자료의 대출·반납 등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연락처 : 유경중 사무관,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Tel. 02-2100-6555, Fax. 02-2100-6564, kjyoo@moe.go.kr]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김세빈 회장

① 제72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대회가 금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각국 도서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

여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심도 높은 토론을 거쳐 앞으로 도서관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이번 서울에서 개최될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통해서 한층 더 도서관이 물적, 질적인 면에서 도약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살리기를 통하여 기본시설 및 양서를 확충하고 가일층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도서관 봉사영역이 물리적 공간내의 제한적인 자료제공 봉사에서 다양한 디지털자료(e-BOOK, 원문정보서비스 등)를 이용한 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② 우리 협의회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립·사립도서관장 및 직원, 각급학교장, 사서담당, 대학도서관 사서담당을 대상으로 5월 정기총회 및 11월 특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국민독서생활화에 기여한 광주·전남 우수도서관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예정이다. [연락처 : 간사 안병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501-110)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 56-1번지, Tel. 062-221-5555, Fax. 062-221-5555, news62@hanmail.net]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전희준 회장

① 문화가 국력인 시대이다. 문화란 그 나라 국민의 정신적 토양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정신적 토양의 비옥도는 그 국민의 독서 수준과 비례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 가구당 도서 구입 및 신문 구독료가 월 평균 1만 397원이었다고 한다.

국민 개독(皆讀)분위기 조성 및 그 실현을 위해 도서관이 분발하도록 당국의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② 지역사회 의 독서진흥 및 문화 창달을 위한 발간사업을 위해 부산지역의 독서진흥과 문화 창달 및 시민독서생활화를 위한 마음밭 걸우기, 리플렛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관련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회보도 발간할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사서 및 사서교사의 사기양양을 위한 우수사서 및 사서교사(초·중·고등학교) 표창 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서 읽기를 위한

다음 활동으로 독서지도교사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학년별 권장도서선정 및 목록을 배부할 것이다. [연락처 : 간사 김성득,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616-092) 부산시 북구 구포2동 산 42-36번지, Tel. 051-332-9790, Fax. 051-343-6191, ksd100su@hanmail.net]



공공도서관협의회

김태근 회장

① 올해 도서관계 최대 과제는 8월에 있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와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등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계는 해외 도서관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여 도서관의 세계화를 이룩하고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 대회를 지식기반 산업 발전의 전기 마련 및 한국도서관계의 세계적 홍보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도서관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위 확보와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서관 문화와 지식정보 기반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4,000명 이상의 해외도서관인들이 참석할 예정인 대회만큼 숙박, 교통, 관광 등 부가가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도서관계와 관련 문화계의 사기 진작과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정책 수립의 핵심역량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과제들이 도서관 이용자를 포함한 국민 각자의 생활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도서관 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해이기도 하다.

우리 도서관인들의 열정과 힘이 국가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 정보의 축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도서관 가족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 우리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공공도서관 협의회를 통한 공공도서관간 협력과 도서관직원들의 자질향상에 힘쓸 것이다.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정기총회·운영위원회 개최, 정년·명예퇴임 도서관장 및 직원 공로패 수여 등의 사업을 통하여 공공도서관간의 협력과 연계 서비스 강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둘째, 특별연구논문집 발간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점을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지역대표도서관의 현안문제점을 중심으로 자유주제와 지정주

제로 나누어 논문을 모집할 계획이며, 정기총회 시 발표·논문집 배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할 생각이다. 유익하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부여,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셋째, 해외연수 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다. 그 동안 일회성의 해외연수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연수주제를 정하여 선진공공도서관의 발전된 제도와 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8월에 개최하는 2006서울WLIC대회를 해외도서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외국도서관 관련인들이 서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락처 : 이유경,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산 60-1, Tel. 02-590-0542, Fax. 02-590-0546, ykleek@nl.go.kr]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천소영 회장

① 2006년 병술년에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개최하게 되어 국내외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증대되리라고 예견되는 바, “지식인 올림픽”이라 일컬어지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도서관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저작권법」을 비롯한 도서관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이용자들에게 항상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기를 바란다.

② 대학도서관 위상강화 활동을 통해 대학기본시설로서의 입지와 지식정보종합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2006년 상반기에는 「저작권법」 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중 대학도서관 관련법규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대학도서관 진단분석 및 장단기 발전계획 로드맵 구성, 대학도서관 단독평가 실시, 해외학술전자정보 연구보고서 발간 및 구입방안 개선, 도서관장·실무자·관리자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이다. [연락처 : 간사 이해영,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Tel. 031-220-2391, Fax. 031-220-2198, clover829@suwon.ac.kr]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김재국 회장

① 세계도서관정보화대회(WLIC 2006 Seoul)가 열리는 2006년은 행사 준비를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와 참여 도서관 및 도서관인들은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도서관 현장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책 등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된 현황과 높은 이용률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②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올 한 해도 지역도서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현실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하계임원연수 및 지역 도서관 방문과 학술DB 및 전자책의 공동구매 추진, 매년 사업으로 전문대학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의 정보교류와 발전을 위해 제11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및 사서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락처 : 회장 김재국, 서일대학 세방도서관, (131-702) 서울시 중랑구 서일대학길 22(면목8동 49-3), Tel. 02-490-7371, Fax. 02-2209-6825, jkk8458@seoil.ac.kr]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박찬석 회장

① 금년 8월에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도서관의 발전적 인식의 변화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서 차세대 정보기술을 최대로 적용해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환경 구현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②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전국의 신학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며 신학연구 및 목회사업 발전을 위하여 2006년도에는 신학도서관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학도서관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교회 도서관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육성지도에 협력할 것이며 신학학위논문 CD-ROM 및 신학분야 전자책 제작 그리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하계, 동계 세미나 및 워크숍도 개최할 것이다. [연락처 :

사무국장 최충식, 천안대학교도서관, (330-705)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393번지, Tel. 041-557-9648, Fax. 041-620-9655, cschoi@cheonan.ac.kr]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나종구 회장

① 2006년의 도서관계의 주요과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도서관정보대회(WLIC)이다. 외형적으로 충실히 치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도서관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연구 및 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도서관계 교수나 사서들 모두가 몸과 마음이 바쁜 한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② 전 년도에 시행되지 못하고 미루어진 의도협 주도의 주제전문사서제도(의학사서) 시행에 박차를 기할 것이다.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올해의 중점과제로 예정되어 있어 각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더욱 요구되는 한 해이다. [연락처 : 김은희 간사,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번지 SK HUB B동 726호, Tel. 02-725-5831, Fax. 02-723-5832, kmla@kmla.or.kr]



(사)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최호남 회장

① 디지털도서관을 향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사서의 역할이 서서히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도서관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영역인 전산, 지식경영, 기록물 관리, 홍보, 교육 등으로 다양해 질 것으로 본다. WLIC 서울대회를 계기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변할 것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는 정기총회 및 워크숍, 학술세미나를 열 예정이며 2006년에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지원, 과정협 수익사업으로는 KISTI 수탁사업인 원자력분야 웹 디렉토리 구축, 회원기관 확충, STIMA Bulletin 발간, 해외교육훈련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연락처 : 홍무 이보슬, (305-3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Tel. 042-868-2294, Fax 042-861-9561, ex-stima@kaeri.re.kr]



한국문헌정보학회

한윤옥 회장

① 작년에 오슬로에서 열린 WLIC에 참석하면서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대학도서관을 일부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도서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도 참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역으로 느꼈다. 이제 올해는 특히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기대를 걸고 싶다. 도서관계의 큰 관심이 집중된 교육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금년에 4년차에 접어든다. 이 사업에 의하여 리모델링된 학교도서관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의 파트너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사서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년에 154명이 임용되는 것에 이어 계속적으로 사서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교육법과 도서관법 등이 제때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와 도서관계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 우리나라의 학부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을 교육한 지 어언 50년이다. 박사과정이 개설된 대학만 해도 10개교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은 이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원숙함의 경지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는 금년에 학회지 제 40권을 발간하게 된다. 학회지 1호를 찾아보면서 원로 선배들이 학회를 처음 만들고, 학회지를 냈던 초창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다.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을 당시이지만 그분들의 열정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진다. 오늘날의 학문적 발전을 일구어낸 학회에 대한 그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올 한해는 특히 학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연락처 : 회장 한윤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Tel. 031-249-9177, Fax. 031-249-9164, yohan@kyonggi.ac.kr]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변우열 회장

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도서관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도서관이나 e-library의 개념에서 유비쿼터스 도서관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자료도 전자자료에 대한 유통과 접근이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비쿼터스 도서관과 동시에 전통적인 도서관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미래도서관의 정체성

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문헌정보학계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보인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정보환경에 적절하게 순응하면서 전자매체와 인쇄매체의 갈등, 소장과 접근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생능력이 약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은 인적자원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따라 2005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도서관은 여전히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학교도서관 진흥법」을 조속히 매듭지어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우리 학회의 큰 행사는 학회지 4회 발행, 하계와 동계의 학술발표대회, 춘계와 추계 워크숍 등이다. 그리고 학문적인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학술상과 1년간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하는 우수논문상도 중요한 행사이다.

문헌정보학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장 적응능력이 있는 실무중심의 연구 또한 중요한 영역이다. 이에 우리 학회의 학술발표대회나 워크숍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이론 중심의 연구 발표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 현장에서 직접 정보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하계와 동계 학술발표대회는 연구중심, 이론중심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춘계와 추계에 개최되는 워크숍은 현장성을 고려하여 사례연구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들로 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세계적으로 저명한 외국의 학자를 초빙하여 특강을 겸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본 학회의 국제화에도 노력하고자 한다. [연락처 : 회장 변우열,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341-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850-8251, Fax. 041-850-8837, wybyun@kongju.ac.kr]



한국비블리아학회

이란주 회장

① 2006년에도 전자정보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들이 디지털콘텐츠 확충에 예

산과 시간을 투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제약과 디지털콘텐츠 증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동과제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관심도 증대될 것이며, 성장과정에서 책에 대한 친밀감을 계발하기 위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도서관 실무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며 세계 도서관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이 도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 한국비블리아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이론 및 실무현장의 관심부문을 중심으로 춘계와 추계학술발표회를 기획주제 형식으로 개최하여 왔다.

2006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교육 방향' 이란 기획주제로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년도 기획주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이용자서비스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우리학회에서는 독서교육, 독서치료, 독서프로그램, 그리고 전자매체와 독서라는 4개의 큰 틀을 구성하고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도서관 중심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독서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회 소속의 '디지털콘텐츠 연구회'에서는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금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별 연구회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도서관계의 현안과 미래지향적인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락처 : 회장 이란주,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36-7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동 23-1, Tel. 019-287-0823, Fax. 02-940-4194, lanju@dongduk.ac.kr]



서지학회

현영아 회장

① 올해 도서관계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 여러 방면에서 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크게는 우리 도서관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재도약의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2006 Seoul)를 맞이하여 외적으로 화려하고 부산한 한 해를 보낼 것이나, 긍정적으로 보면 각 분야의 분과위원별로 우리의 현실을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세계도서관계의 발전 속에서 우리 도서관의 취약성 및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그 해결 방법 및 향

방을 점차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② 서지학회에서는 학문상의 발전은 물론 그 동안 학부 학생 및 전공자들의 서지학 분야에 대한 개념 확립을 위하여 작년에 1차적으로 서지학개론을 발간한 바 있으며, 그 2차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서지학대사전의 편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올해 발간까지는 못 하겠지만 우선 편찬의 시작이라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한다. 이의 편찬을 위하여 서지학사전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구체적인 진행을 위하여 많은 학자 분들은 물론 관련 전공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서지학의 국제적 발전과 함께 학문적인 교류를 위하여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수준 높은 저술에 대하여 저술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서지학의 수준 높은 학문의 토론 장이되는 학술발표회 및 우수 연구 논문들이 게재되는 학회지의 활발한 발행으로 서지학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문의 : 회장 현영아,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Tel. 02-300-1507, Fax. 02-307-6196, yahyun@mju.ac.kr]



한국기록관리학회

김태수 회장

① 금년은 WLIC 대회가 서울에서 있는 해로써, 국내의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일찍이 도서관에서는 국경이나 인종을 넘어서서 정보의 교류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인류복지와 문화창달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정보와 인력의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아울러 국내 도서관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리라 본다.

② 우리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등록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회원 간 연구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들이 발표됨으로써 기록관리학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정보매체로서 기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 중에 「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학회의 회원수를 배가하고 저변확대를 꾀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려고 한다. [연락처 : 총무이사 서혜란,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617-736)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 1-1 Tel. 051-309-5290, Fax.

051-309-5177, hrsuh@silla.ac.kr]



대전공공도서관연구회

오재섭 회장

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사회 신공공정책의 도입으로 6급인턴공무원제, 팀제운영, 총액임금제, 개방형공무원 20%도입, 민간위탁확대, 성과급제, 퇴직준비금 시행을 앞두고 우리 도서관계에도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최근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시장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 노조, 시의원이 주축이 된 '민간위탁 저지 비상대책위'를 구성 민간위탁 추진에 혼선을 거듭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도서관인으로서 우려와 다행스러움이 교차한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안산에 국한된 일이라 하기에는 공무원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많은 변화·개혁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각자의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② 대전지역 12개 공공도서관 직원을 회원으로 대전공공도서관연구회가 창립 3년째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는 보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2월 정기총회에서 2006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을 결정할 것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10월에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의 우수한 도서관을 견학하여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현재 독서진흥, 문화행사, 디지털정보, 자료조직 4개 분과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분과를 확대·구성할 계획이며, 분과에서 1년여 간 준비한 논문을 11월 중 세미나 개최 시 발표 및 전국 도서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연락처 : 간사 진창구, 대전 한밭도서관, (301-71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45-3, Tel. 042-580-4244, Fax. 042-580-4204, cgjin@metro.daejeon.kr]



전라남도도서관연구회

박순덕 회장

① 최근 공공도서관의 위상이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도서관 사서들의 위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라남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공공도서관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변경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되고 있다.

특히 전남 곡성에 곡성공공도서관이 리모델링 되고 수영장을 추가로 신축하면서 곡성공공도서관을 곡성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전라남도 내 사서들 모두 걱정과 한숨만 짓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분들의 뜻이라 사서들의 힘으로 명칭 변경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라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②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인식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망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공공도서관 기능을 사회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사서직을 법정정원의 23%(현재)에서 30%까지 증원 노력, 공공도서관 예산 증액 노력, 곡성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저지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연락처 : 총무 이의재, 광양공공도서관, (545-050)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342, Tel. 061-794-8780, Fax. 061-791-8781, leeja@lycos.co.kr]



경남공공도서관연구회

서여화 회장

① 2006년은 ‘도서관 :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이라는 주제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도서관의 역할과 도서관인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더욱 성숙한 도서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우리 도서관이 더 크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채용으로 학교도서관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 본다.

② 분과별 연구를 활성화하여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자기개발과 도서관에 대한 열정으로 신뢰받는 도서관, 감동 주는 도서관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 또한 현장의 살아있는 소리를 반영하는 생동하는 조직체로서 기본철학과 비전이 있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락처 : 간사 박영숙, 김해도서관, (621-040) 경남 김해시 봉화동 458-15번지, Tel. 055-324-8823-4, Fax. 055-324-8864, yspark-lib@hanmail.net]



경기도사서연구회

강선주 회장

① 2006년도는 무엇보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킴은 물론 전 세계 도서관인에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물론 유관 기관·단체와 모든 도서관인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때인 것 같다.

또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도 도서관계가 주목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② 경기도사서연구회(이하 경사연)가 출범한 지 이제 금년 들어 11년 차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경사연은 지난 10년 동안 도서관과 사서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도서관계를 위해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지난 시절 공공도서관은 성장의 당위를 유보하여 오다가 근자에 들어 획기적인 양적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인구 10만 명 당 1개관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자라나는 시설이라 하였듯이 앞으로도 더욱 그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서들의 마음가짐과 역량의 증진은 도서관의 수준 있는 성장과 직결되리라 믿는다.

이에 경사연도 중견 사서들의 폭넓은 경험과 신규 사서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잘 접목시켜 공공도서관 업무발전의 일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06년도 경사연 중점 업무 방향은 경사연 회원들의 충의를 바탕으로 우선 생동감 있는 조직의 분위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공공도서관의 업무 발전을 위한 실무적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결과를 위해 의미 있는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세미나를 비롯 사서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끝으로 사서들의 안목을 높여 세계 속의 공공도서관을 지향하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또한 역점을 두고자 한다.

2006 병술년 한 해도 각 도서관 단체마다 구상하는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사서 분들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한다. [연락처 : 회장 강선주, 경기도립성남도서관, (461-81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344, Tel. 031-730-3550, koor@hanmail.net]



대구공공도서관사서회

신종원 회장

① 밖으로는 세계의 도서관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06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축제에서 한국의 도서관을 당당히 선보일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안으로는 우리의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정보 축적 및 제공기술을 함께 함으로써 이제 도서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와 문화를 함께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대구공공도서관사서회는 1982년 출범하여 격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연구회지인 <도우> 제7집을 2005년에 발간하였다. 올해에는 '4개 연구분과위원회' 및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통해 회원의 연구의지와 친목도모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문성을 배가하는 한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보축적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독서문화, 평생교육, 문화공간, 국제정보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봉사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락처 : 간사 노경자, 대구두류도서관 (706-70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1417번지, Tel. 053-650-0213, Fax. 053-740-5599, notops@tgedu.net]



경상북도사서연구회

이정길 회장

① 올해부터는 주5일제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게 되어 학생들의 주말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주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추세로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가중될 것이며, 이용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저녁근무 용역 등 도서관 근무 형태도 변화될 것이다.

②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현재 도서관의 기능직 직원을 사서직으로 전환하도록 매년 정원 관리 부서에 요구할 것이며, 주말근무 여건 개선 등

사서연구회원들의 권익 신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참고로 2005년에 기능직을 사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12명이고, 도서관 정원을 4명 증원하는 등의 실적이 있음.)

또한 연구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서 화합의 날 지정 운영(체육대회, 등산대회 개최 등), 경북사서연구회지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락처 : 사무국장 김미성, 청도공공도서관, (763-800)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3리 508, Tel. 054-373-6617, Fax. 054-372-0922, chongdolib@hanmail.net]



경기도사서협의회

정문택 회장

① 오늘날의 사회상은 무한경쟁시대라 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블루오션 전략 등이 각광받는 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도서관계에서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가치 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발과 다양한 역할창출로 국민들 간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절대불변의 믿음을 갖고 국민독서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독서진흥사업을 발굴 전개함으로써, 도서관이 변화의 허브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전 도서관인들은 합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성공여부는 우리나라 도서관인들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 세계 속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현재 경기도는 80개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작년 고양시에서 열린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006년까지 120개의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기도민 8만명당 1개관 설립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 도서관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금년도 경기도의 역점추진사업이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도서관 직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회지 발간,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각종 정보교환은 물론 사서직원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경기도 공공도서관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경기도 73개 도서관 350여명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1차 독서치료 전문상담요

원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금년에는 독서치료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도내 전 사서직의 독서상담요원화를 통하여 긍정적 기운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락처 : 서성남, 석수도서관, (430-0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2동 산 159-23, Tel. 031-389-3800, Fax. 031-389-3838, libnami@naver.com]



충청남도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박상임 부회장

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문화 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요즘은 각 지방마다 축제를 비롯한 프로그램들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2006년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단체장 후보들은 문화 예술과 관련 다양한 공약을 할 것이며 도서관도 그 일환으로 양적인 성장 기회를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이중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가장 활발하고 학교도서관도 사서교사 배치 문제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WLIC 대회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2006년,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우리 도서관계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② 크게 세 가지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다. 차별화된 도서관 이미지와 이용자 서비스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다.

차별화 된 도서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대중적인 취미강좌 운영보다 전문이고 차별화 된 지식, 문화 강좌를 과감히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맞춤형 자료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이용자 개인에 맞는 자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초점을 다수에서 개인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문고나 작은 도서관 등 산발적인 단체와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하여 상호 활용하도록 구상 중에 있다. 이러한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능력 향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모임, 직원 강좌 운영 등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연락처 : 부회장 박상임, 천안시중앙도서관, (330-070)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261-38, Tel. 041-521-2811, Fax. 041-521-2811, sangim@hanmail.net]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한복희 회장

① 2006년은 어느 해 보다 뜻 깊은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전 세계 도서관인의 축제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서울에서 열려, 우리의 도서관이 드디어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통하여 도서관의 위상을 더 높이고, 21세기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며, 도서관과 사서, 학계가 하나 되어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공공도서관 또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늘 함께 하는 지식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②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는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47명의 사서로 구성되어 있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올 해 5월에는 도서관 정책과 업무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 총회에서는 보다 나은 사서협회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분과별 활동으로는 홍보분과, 학술분과, 봉사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분과에서는 독서관련 자료 홍보와 학술 연구 및 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 한해에도 체계적이고 보다 나은 활동으로 사서협회의 내실을 기하고 사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적극적인 홍보와 연구,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락처 : 총무 박은영, 울산 동부도서관, (682-807)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57-14, Tel. 052-236-0466, 016-786-4313, parkhanara@use.go.kr]



한국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

이정걸 회장

① 최근 정부 정책이 복지정책과 인적자원개발을 중요시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고 본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해마다 확대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이 지역 평생학습관으로서 위상은 위축될 것이며, 기타 각종 기관·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할 것이다.

또한 직장인과 원거리에 있어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사이버 강

좌를 운영하는 도서관이 늘어날 것이다.

② 한국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는 50여명의 회원이 총회 및 워크숍, 문화유적지 탐방, 사례 발표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회보를 발간하고 한국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정보 교환(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연락처 : 간사 김필진, 청도공공도서관, (714-802)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3리 508, Tel. 054-373-6617, Fax. 054-372-0922, chongdolib@hanmail.net]



(사)어린이와도서관

박경서 회장

① 사회적으로는 독서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도서관 관련 개정법이 국회의 뒷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아직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은 정치적 이슈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고 지원이 줄고, 또한 관련 예산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넘어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격차가 생길 것 이기에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② 정책/교육분과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지원(찾아가는 도서관학교 사업으로 설립과 운영교육지원을 하고, 전국 어린이도서관의 책문화 행사에 재정적 지원과 정책 개발을 통해 지원), 어린이도서관활동가 교육(활동가 재교육을 위해 어린이도서관 전체 활동가 교육마당을 옴), 국내외 연대사업(통일세대아이들과 함께 교포아동에 게 도서와 책문화행사를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책 문화 분과에서는 어린이책 비평과 어린이 입장에서의 추천도서목록을 만든다. 재정분과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백담마을 자연놀이학교, 황태 공동구매, 개똥이네놀이터 정기구독 사업, 극단 <민들레> 단체관람 기부금, 지정기부금에 의한 후원사업, 좋은엄마와 편집과 사업제휴를 추진할 것이다. 홍보분과에서는 홈페이지 개편과 웹진 발행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어린이와 책문화를 소개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작은도서관 활동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정리할 계획이다. [연락처 : 사무국장 김정균, (133-070)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34-6 2층, Tel. 02-2297-5933, Fax. 02-2297-5933, kidlib@hanmail.net]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명호 회장

① 지식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집약처이자 지역문화의 핵심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주5일제 확대 실시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 모두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해도 편안한 휴식공간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서관문화를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

② 2006년은 우리 협회가 그동안 계획하고 기반을 다진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한다.

먼저 출판인프라 기초 확립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출판진흥위원회의 설립과 도서정가제의 법적 제도 확립, 그리고 저작권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향후 개정 시 출판계의 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한 독서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회관에 대형현수막을 게시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단체와도 연계하여 실질적 독서진흥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2008 IPA(국제출판협회) 세계총회 개최, 2007 파리도서전 주빈국, 서울국제도서전 등 출판의 국제화를 위한 사업에 내실을 기해 나갈 것이다. [연락처 : 이순덕, (110-190)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05-2, Tel. 02-734-0790, Fax. 02-738-5414, lsd@kpa21.or.kr]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전지성 회장

① 그 어느 해 보다도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으로 한 해가 출발되어 매우 희망적이다. 특히 민, 관이 어울려서 국민 정서 함양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병행하게 될 때 그 빛이 더 하리라 믿는다.

② 첫째,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팀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는데 정책의 우선성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모임 및 실무 모임이 크게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 작은도서관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매뉴얼작업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셋째, 기업과 연계한 시범 작은도서관 모델을 올해중 개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연락처 : 최장 전지성, (412-821)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867-13 스페이스 1동 103호, Tel. 031-973-3200, jvc9191@nate.com]

2006년 전국도서관대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회원 및 도서관인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올 8월 서울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2006 Seoul)가 열립니다. 우리 협회는 WLIC 2006 Seoul 조직위원회와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WLIC 2006 Seoul의 성공적 개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의 성숙과 국제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회원 및 도서관인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국가적이자 도서관계의 시대적 과제인 WLIC 2006 Seoul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 협회는 올해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WLIC의 개최에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8월 세계적인 도서관 축제의 마당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올해의 WLIC 및 그 동안의 도서관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가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서관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올 해부터 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올해는 8월 WLIC 2006 Seoul 대회장에서 뵙겠습니다.

2006년 한 해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

[문의 : 기획부장 이용훈 (02-535-4868)]